기업윤리 브리프스

기업가치를 높이는 청렴경영 가이드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기준

12
2020 December | VOL. 96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기업윤리 브리프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0년 12월 1일(매월발행, 통권 96호, 비매품) **발행인:** 전현희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6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110
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신고

COVER STORY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어떻게 측정하고 공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IFRS(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재무적 성과 중심의 기존 회계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차원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대표적인 글로벌 기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C · O · N · T · E · N · T · S

01 **전문가코칭**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기준

02 **사례돋보기**
지속가능경영, 뉴노멀이 되다

03 **보고서리뷰**
지속가능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경영의 룰이 바뀌고 있다

04 **중소기업 CSR 백서**
중소기업을 위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백서
_ CHECK(평가) ②

05 **국내외 동향**

06 **행사소식**

07 **문화 속 기업윤리**
참치는 국경이 없다 - 『착한 경영 따뜻한 돈』

08 **지식1G**
지속가능경영의 이행과 공시를 위한 글로벌 기준

09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주요 프로그램 안내**

10 **독자퀴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 재 혁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글로벌 기준이 대두된 배경은 무엇이며, 최근 국제사회의 동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많은 기업들은 생존 자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재무적 성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재무적 성과를 위한 과정, 즉 경영활동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재무적 성과를 위해 각종 악행(협력업체에 불공정 행위 강요, 폐기물 무단 방출 등)을 일삼는 기업들의 지속가능성은 결코 높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영활동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재무적 성과가 중요한 핵심지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기준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통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ESG프레임워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ESG 투자목적의 평가지표는

전문가 코칭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기준

MSCI ESG 평가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은 금융상품 운용에, 기업들은 자사의 지속가능경영 성과 평가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ESG 평가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도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ESG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ESG 평가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관은 MSCI와 Sustainalytics인데, 이 두 기관의 산업별 평가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ESG 평가지표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포럼(WEF),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회계법인(Deloitte, EY, KPMG, PwC)이 참여해 ESG 핵심 측정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제표준과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Better Cotton Initiative'(섬유), 'Drive Sustainability'(자동차), '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통신), 'Together for Sustainability'(화학), 'UNEP Finance Initiative'(금융) 등 최근 산업별로 다양한 국제표준과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공통 핵심이슈는 기후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RE100'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100%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기업들의 자율적 캠페인입니다. 민간 주도의 이니셔티브이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글로벌 정책의 변화라는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환경보호라는 대의명분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진입장벽'을 구축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RE100을 선언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지속가능경영 정책을 글로벌 가치사슬로 확대해 협력업체에게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따라가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RE100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건설, 지분참여, 전력구매계약, 녹색요금제 등 4가지 옵션이 존재하지만, 국내 여건상 녹색요금제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태양광(112원), 풍력(91원), 석탄(74.9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한국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비용 측면의 경쟁우위 확보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관련 제도적 방안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는 개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증진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부 및 관련 기관, 기업, 학계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기존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제 표준화에 대한 소개 및 대응체계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기업이 주체가 되어 아시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선제적으로 구성하여, 글로벌 이니셔티브 게임에서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리더 기업의 위상을 발휘할 수 있는 적극적 행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례돋보기

지속가능경영, 뉴노멀이 되다

●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지표는 경영의 필수요소라는 의미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규격은 세계시장에서의 호환성 확보에도 필수적이다. 경영 성과를 보고하는 회계기준에도 국제표준이 도입된 것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이행과 이러한 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례돋보기에서는 지속가능경영의 이행, 공시를 위한 대표적인 글로벌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글로벌 기준

기업은 품질관리, 반부패, 친환경 등의 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조직에 적용하게 된다. 이때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표준이다.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 대표적인 국제표준으로는 ISO26000, ISO37001, RE100 등이 있다.

① ISO26000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글로벌 기준

ISO26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추진 중인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이다.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기후변화협약, 유엔 소비자보호지침 등 각종 국제 지침을 총망라하고 있어, 인권 신장, 노동관행 개선, 환경보호, 공정거래 등 소속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영 방침을 실천할 수 있다. 경영시스템 정합성 평가나 인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ISO26000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무역 마찰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ISO26000을 초기에 도입한 선진기업 중 하나로, 기술 확장과 책임 경영이라는 카테고리 하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기술 확장으로 재난, 장애, 교육,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책임 경영으로 지역사회의 번영, 지구 자원 공유, 경제 안정 등을 위해 환경, 노동, 인권 등을 아우르는 독자적인 원칙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다.

② ISO37001 - 부패방지 실행방안을 담은 글로벌 기준

ISO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공표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부패방지 경영 체계의 수립, 실행, 유지,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매년 국가별 부패관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투명성기구와 경제협력기구(OECD)가 ISO37001 제정에 참여했으며 세계적으로 37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업은 ISO37001 도입을 통해 뇌물수수로 인한 법규 위반 리스크 감소, 고객 신뢰 증대, 파트너십 향상, 직원 및 협력회사에 반부패에 대한 인식 공유, 뇌물 수수와 관련된 비용 예방, 공공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입찰에서 강화되는 반뇌물수수 시스템에 대한 충족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제약업계에 ISO37001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③ RE100 -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은 'Renewable Energy 100'의 앞 글자를 딴 말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 100%를 의미한다. 기업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충족하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Climate Group*과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의 대표로 구성된 RE100 프로젝트 위원회에서 RE100의 성과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구글, 애플, BMW, 이케아, GM 등 전 세계 263개 기업이 RE100에 동참해, 공급망 내의 많은 협력사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케아는 RE100 초기멤버로서, 모회사 잉카그룹은 2009년부터 풍력, 태양광 발전 등에 약 25억 유로를 투자 중이다.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 운영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고 2018년 회계연도 중에는 81%, 2019년 회계연도 중에는 93%를 달성했다. 우리나라에서는 SK그룹 8개 관계사가 올해 11월 2일 한국 최초로 RE100에 가입한 바 있다.

■ 지속가능경영 공시를 위한 글로벌 기준

기업은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영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진행한다. 지속가능경영이 확산되면서 기존 사업보고서 외에도 비재무성과 정보를 포함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보고 기준을 채택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기준으로 GRI, CDP, SASB 등이 있다.

① GRI 가이드라인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UN의 협력기관으로서,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GRI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GRI 보고서는 환경, 경제, 사회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의 재무적, 비재무적 성과를 망라한다. 단순히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성과를 임직원, 주주, 시민사회와 어떻게 배분하였는지,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윤리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어떤 정책을 도입했는지 등이다. 현재 글로벌 기업은 물론 거의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들도 매해 GRI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② CDP -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요청 · 수집 · 분석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전 세계 주요 상장 기업(상위 500대 FT500 글로벌 인덱스 기업)의 이산화탄소 또는 온실가스 배출 정보와 쟁점에 관하여 장단기적인 관점의 경영 전략을 요구하고 수집해 분석, 평가하는 범세계적 비영리 기구다. 우리나라는 CDP 한국위원회에서 시가 총액 상위 200대 기업의 환경 정보를 조사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CDP 보고서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했다.

CDP 평가 기후변화 부문에서 A등급을 받은 미국 포드자동차의 경우 115억 달러 이상을 전기차 사업에 투자하는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기차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머스탱 마하-E', 'F-150' 등 자사의 인기 모델들을 무공해 버전으로 선보일 계획이며 최근에는 북미 지역 최대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런칭하기도 했다.

③ SASB - 비재무정보 측정을 위한 회계기준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기업의 비재무공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지속가능 회계기준이다. SASB는 2018년 처음 표준을 공개하였으나 올해 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기업들에게 적용을 권고할 정도로 빠르게 시장에 정착되고 있다. SASB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미국 사업보고서(10-k)에 지속가능 회계기준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은 공시자료에 SASB 지표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자 미국 주가지수를 견인하는 애플의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SASB 인덱스에 맞춰 자사의 지속가능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글로벌 기준, 지속가능경영의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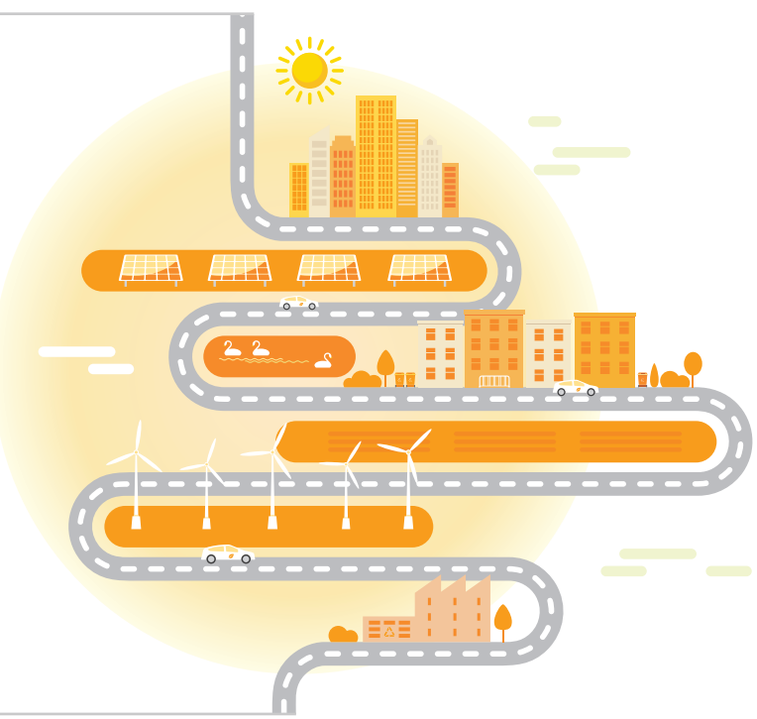
이처럼 국제사회에서는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글로벌 기준들이 제정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준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자사의 업태와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에 올라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참고자료 리스트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웹진 내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3년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 파리 기후 협정에 따라 조직된 국제 기후변화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Under2 Coalition)의 연합 사무국이다.

보고서 리뷰

지속가능성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경영의 룰이 바뀌고 있다



- 2019년 미국 경영자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기업의 목적에 관한 성명'에서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기업 활동에 주주만이 아닌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이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이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원칙의 현대화'라고 표현했다. 주주 자본주의의 종식이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출범이다. 실제로 단기적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주 자본주의는 실업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즉 지속가능경영의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 및 글로벌 기준들을 내놓고 있다.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글로벌 표준들과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책임의 의무화 동향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출현과 고도화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이윤 추구 방식이 달라져야 하고 또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 주주 자본주의 방식으로는 돈을 벌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제도화·법제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금은 그 패러다임의 전환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전통적으로 자발성에 의지해왔으나, 대략 6년 전부터는 법과 제도로 촉진하고자 하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일부는 이미 현실화돼있다.

UN PRI(책임투자원칙)과 MSCI*가 발표한 '책임투자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Global Guide to Responsible Investment Regulation)에 따르면, 책임투자와 관련된 정책을 연기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고려,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의 ESG 정보공개로 분류했을 때 이러한 규제의 절반 이상이 2013년~2016년 시기에 집중돼있다. 또 GDP 순위 상위 50개국 중 이란만 ESG 요소와 관련된 투자 정책이 없었다. KPMG, GRI, UNEP, 아프리카 기업지배구조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 'Carrots & Sticks(당근과 채찍)'에서도 **ESG 정보 공개 의무 제도는 2013년 44개 나라 130개였으나 2016년에는 64개 나라 248개로 증가했다.**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G20의 기후 관련 정보공개 추진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의미하는 ESG 정보 공시 의무화는 이제 기본이 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의 ESG 정보 공시 의무를 2014년 법제화해 2018년부터 적용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공개 의무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가 대표적이다. TCFD는 가후변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는 세계 주가지수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들과 대형 펀드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수 있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 주도로 창설됐다. 그리고 2017년 TCFD는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4가지 핵심요소인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측정기준 및 목표설정에 대한 정보공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머지않아 의무화될 전망이다. 주요 국가의 금융감독기관들이 중심이 된 녹색금융네트워크, NGFS(Network of Greening Financial System)는 TCFD의 의무화를 더욱 빠르게 진척시킬 중요한 이니셔티브다. 2019년 4월 NGFS는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이 환경·기후 이슈를 다루는 방식과 관련해 6개 행동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기후위기 리스크를 금융안정성 모니터링에 반영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금융기관과 기업은 기후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 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프랑스는 TCFD 격인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해 연기금, 금융기관, 기업에 이를 의무화했다.

주요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증가

자본시장에서도 투자대상의 ESG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연기금의 ESG 고려를 제도화하는 추세와 상관있다. 영국은 연금법을 제정해 2000년 7월 3일 시행했다. 연금펀드를 운용하는 모든 주체들이 투자자산의 선택·보유·매각과 관련해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요소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지와, 의결권을 포함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라고 의무화한 법이다. 비슷한 시기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도 영국과 유사한 법을 도입했다. 전 세계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016년 22조 8900억 달러에서 2018년 30조 6830억 달러로 증가했고, 2014년 17조 6820억 달러와 비교하면 4년 사이에 73.5%나 늘었다. 일본은 2014년 7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8년 2조 180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는 보험회사, 은행,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고객, 즉 가입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의결권 행사 등 주주 활동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자율지침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투자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책임성이 드러나면서 등장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주목할 점은 **장기적 관점에서 ESG 고려를 함으로써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는 코드 이행 방식을 '원칙 준수, 미준수 시 사유 설명'인 자율적 준수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의 종주국인 영국은 지난해 이 방식을 '모든 원칙 적용, 그리고 설명'으로 규제 수위를 높였다. 또 상장기업 외의 기업(비상장기업)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통합을 강화했다. '모든 원칙 적용, 그리고 설명' 방식은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방식의 대세가 될 전망이다.

국내 사회책임 제도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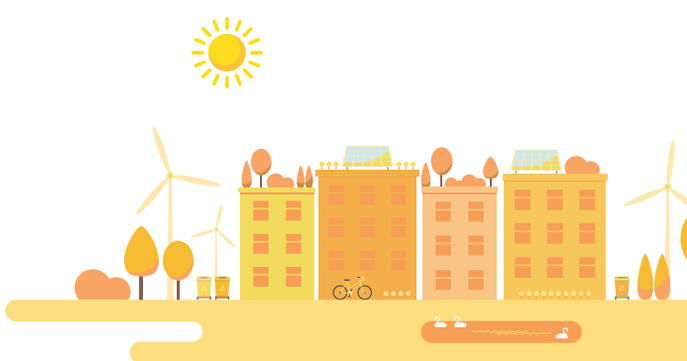
2016년 12월 우리나라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도화했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2019년 말 확정했기 때문에 코드의 적용이 더욱 본격화되고 확장될 전망이다. 2019년 11월 의결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주식 일부에만 적용되던 사회책임투자는 2020년부터 국내외 주식과 채권으로 확대된다. 또 국민연금 가치사슬의 일부인 위탁운용사의 선정과 평가도 ESG 관점에서 실행하게 된다.

지배구조 관련 공시 또한 의무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시행해 오던 지배구조 관련 자율공시를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에 의무공시하도록 했다. 2021년에는 코스피의 모든 상장기업에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성,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의 시작

이처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경영의 성과 측정과 투자를 위한 새로운 기준들을 속속 준비해 수립해나가고 있다. 재무적 성과 중심이었던 자본시장에서도 그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바야흐로 뉴노멀,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이 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세계는 지금 전환의 시대, 그 문 앞에 서 있다. 고탄소 사회에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배타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의 전환,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 등이다. 기업은 이제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라는 낡은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전 세계 스마트한 경영자들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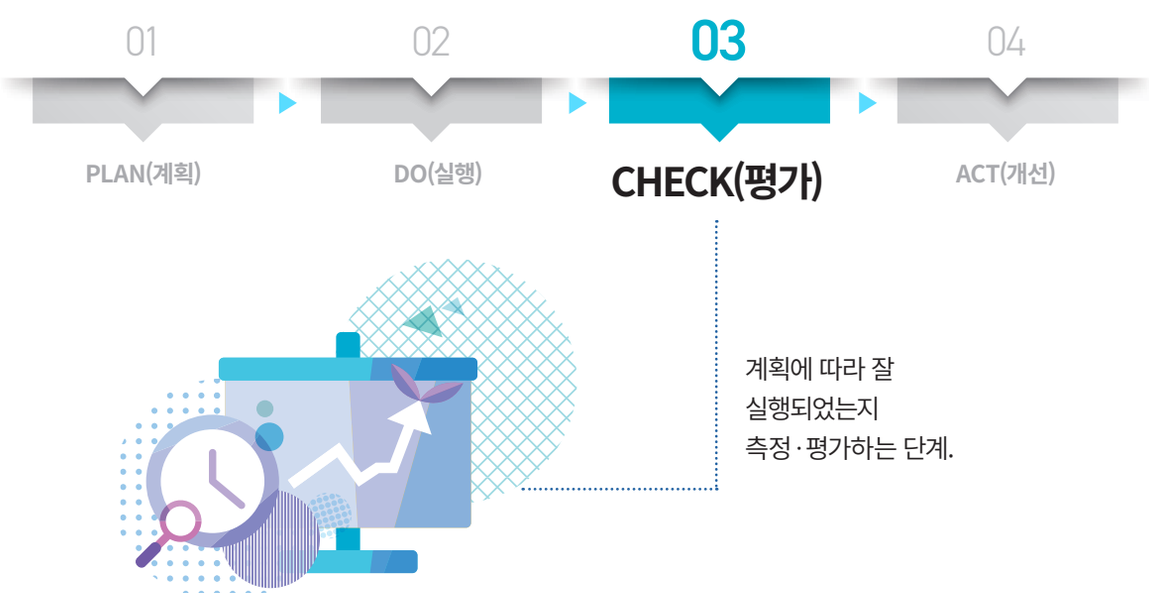


* 참고 자료 – 『기업이 돈을 벌고 쓰는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프레시안에서 발췌 후 편집

중소기업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백서

중소기업을 위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백서 _CHECK(평가)②

- 『중소기업을 위한 CSR 백서』는 중소기업이 CSR(Corporate Sustainable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나아가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구성의 짜임새와 효율적인 실무 적용을 위해 생산 및 품질관리 방법론 중 하나인 PDCA의 사이클을 차용했다. 이번 호는 세 번째 CHECK(평가) 단계의 두 번째 순서로, CSR 보고서 작성을 위한 프로세스와 단계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CSR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

1 단계 보고 프로세스 계획

먼저 보고서 작성을 위해 각 부서의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로 팀을 구성한다. 여건 상 팀 구성이 어렵다면 1명의 전담 직원을 배치한다. 그다음 교육을 통해 CSR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GRI 가이드라인, ISO 26000, UN 글로벌 콤팩트 등의 보고 기준이 포함된다. 이때 CSR 주제에 대한 논의와 보고서 발간을 위한 내부적인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이해와 참여를 확인한다.

2 단계 이해관계자 파악 및 참여

먼저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한다. 이해관계자란 조직의 활동, 제품, 서비스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 주체 또는 개인을 의미한다. 보고자는 이해관계자들과 무엇을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다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해관계자가 기업 활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한다. 이해관계자 참여가 높아질수록 조직과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므로 이해관계자의 파악과 의견 반영은 보고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3 단계 보고 내용 결정

먼저 회사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이슈를 선정한다. 지속가능성 이슈는 경제, 환경, 사회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존재한다. 필연적으로 회사의 지속가능성은 핵심사업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여러 이슈들 중 회사에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조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 조직 외부의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점검도 병행해야 한다.

그다음 중요 보고 영역을 선정한다. 광범위한 관련성 이슈를 우선순위에 따라 좁혀나가는 과정이다. 선정된 이슈 리스트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간담회, 그룹 미팅, 1:1 인터뷰 등도 좋은 방식이며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 내용을 결정한다. 중요보고 이슈 목록은 크게 경제, 환경, 사회로 나누어지며 각 상세 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중요보고 이슈 목록

경제	환경	사회
• 경제 성과 • 시장 지위 • 간접경제효과 • 조달관행	• 원재료 • 에너지 • 용수 • 생물다양성 • 배출 • 폐수 및 폐기물 • 제품 및 서비스 • 컴플라이언스 • 운송 • 종합 • 공급업체 환경평가 • 환경고충 처리제도	• 노동관행: 고용,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교육훈련, 다양성과 기회균등 등 • 인권: 투자, 차별금지, 아동노동 등 • 사회: 지역사회, 반부패, 공공정책, 경쟁저해행위 등 • 제품책임: 고객안전보건,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고객 정보보호 등

4 단계 보고서 작성

먼저 데이터를 수집한다. 관련 활동 및 성과를 내부 시스템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데이터가 외부조직에서 발생 시 수집 방안을 마련한다. 취합이 어려울 경우 사유를 설명하여 신뢰성을 높인다. 데이터의 정리 부재로 인한 문제는 교육을 통해 해결한다.

그다음 초안을 작성한다. CSR 보고 전담팀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서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전담팀이 데이터를 취합, 직접 작성할 것을 추천한다. 보고서의 외부 검증 시에는 해당 기관을 공개해야 한다. 보고 분량은 조직 상황에 따라 보고 분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CSR 사회적 책임경영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CSR 보고 템플릿은 필수적인 영역만을 압축해 20페이지 전후로 간소화한 보고서를 권고하고 있다.

CSR 보고서 작성을 위한 참고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CSR 보고서 작성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자료와 보고서 작성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CSR 사회적 책임 사이트(www.smes.go.kr/csr) 내 CSR 보고서 개발 플랫폼 페이지를 이용하면, 주어진 템플릿에 따라 조직의 CSR 정보를 입력하여 CSR 보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 참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CSR 사회적 책임경영 홈페이지 내 CSR 아카데미 (https://www.smes.go.kr/csr/user/edu/edcnList.do)

국내동향

국민연금, 2년 내 운영기금 50% ESG에 투자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도 ESG 투자 확대를 기정사실화했다.

지난 9일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22년까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가 기금 전체 자산에서 약 50%로 확대될 예정”이라며 “2021년부터 ESG 통합전략을 국외 주식과 국내 채권 자산에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외 주식 투자 규모는 166조원, 국내 채권 투자 규모는 322조원에 이른다.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 국민연금의 ESG 관련 투자는 2024년 5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기금자산의 절반을 ESG 전략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큰 변화로 유럽·미국의 연기금 투자 트렌드와 부합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가 곧 발표할 ‘탄소효율 그린뉴딜 지수’를 보면 투자 종목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참고 – 매일경제, 2020.11.09
국민연금, 2년내 운용기금 50% ESG에 투자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0/11/1150146/

고용노동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으로 표준계약서 도입

정부가 최근 잇따른 택배업체 기사들의 과로사를 야기한 업무 가중 원인으로 꼽혀온 택배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 소재를 택배회사(택배사업자)로 규정하고, 심야배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만든다.

내년부터 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 지난 30여 년간 택배기사가 관행으로 부담해온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이 택배회사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오후 10시를 배송마감 시간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식품 등 생물(生物)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오후 10시 이후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택배회사가 부담할 분류작업 시간 단축을 위해 자동화 설비 도입 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 조선비즈, 2020.11.12
내년부터 택배 분류작업 택배회사가 한다…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2/2020111201485.html

해외동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복귀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복귀를 예고하며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강조했다.

유세기간 동안 바이든은 2050년까지 미국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2021년부터 10년간 총 5조 달러(약 6000조원, 정부·민간투자 합산)를 퍼붓는 ‘그린뉴딜’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해당 정책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순수 투자분은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도 꾀한다. 특히,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임기 동안 청정에너지 연구개발(R&D) 부문에만 40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 참고 – 아주경제, 2020.11.11
[바이든 승리] "석유 아닌 수소메이저 되겠다"...바이드노믹스에 다급해진 에너지 업계
https://www.ajunews.com/view/20201111172855375

스웨덴 코로나19 ‘집단면역 실패’ 시인, 비윤리적·정당화 불가

집단면역 정책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온 스웨덴 방역 총괄 책임자가 집단면역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실상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스웨덴은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학교와 레스토랑, 헬스클럽을 열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역 조처를 취하도록 내버려 둔 바 있다. 이러한 집단면역 정책이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안데르스 텡넬 스웨덴 공공보건청 수석 역학자는 독일 주간 디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집단면역을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이지도 않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감염률은 가을이 시작된 이후 지난 두 달간 8배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스웨덴 전국 21개 지역 중 17곳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 – 연합뉴스, 2020.10.29
스웨덴 '집단면역 실패' 시인…확진자 폭증에 중대기로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9061000009

행사소식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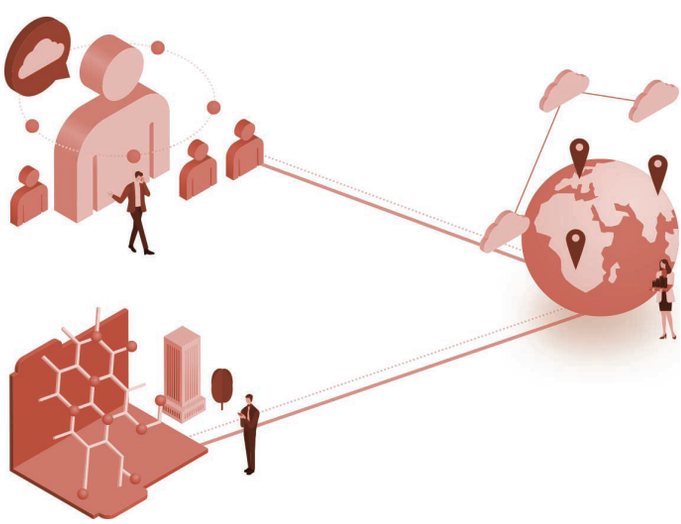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을 주제로, 진실이 통하고 신뢰와 투명성이 담보되는 앞으로의 10년, 2030년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인이 함께 논의한다.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주최 국민권익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국제반부패회의(IACC)위원회
일시 2020.12.1.(화)~12.4(금) (온라인 진행)
안내 http://www.iacc2020.kr

재생 에너지의 미래 디지털 컨퍼런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녹색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기술,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글로벌 에너지 업계의 리더, 투자자,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 토론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주최 Reuters
일시 2020년 12월 8일-9일
등록 https://reutersevents.com/events/future-of-renewables



문화 속 기업윤리

참치는 국경이 없다
『착한 경영 따뜻한 돈』

● 참치는 돌고래를 따라다닌다. 참치의 천적인 상어가 비슷한 덩치를 가진 돌고래는 피해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참치잡이 어선들이 돌고래 떼만 보면 그물을 던진다. 그물에 걸린 돌고래는 크게 다치거나 죽는다. 인간한테는 '아니면 말고'지만 돌고래에게는 목숨이 걸린 문제다.

미국 참치잡이 어선들이 이런 식으로 돌고래를 괴롭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의 어린이들은 크게 분노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여론이 악화되자 미국 정치인들은 돌고래에게 피해가 없도록 참치 조업 방식에 규제를 도입했다. 문제는 참치에게는 국경이 없다는 데 있었다. 멕시코 참치회사들은 미국법을 지킬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같은 바다에서 잡히는 같은 참치인데 멕시코산 제품이 훨씬 저렴해졌다. 그러자 1990년 미국은 멕시코산 참치통조림의 수입을 금지했다. 멕시코는 즉시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에 따라 국제기구에 제소했다. 그리고 국제기구는 영화 등 예외로 인정되는 상품 외에는 동종 상품에서 외국산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멕시코의 승리였다. 고육지책으로 미국 참치회사는 참치통조림에 '돌고래를 지키는 제품'이라는 라벨을 붙였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의도지만, 어쨌거나 해양 생태계를 지킨 노력은 불이익으로 돌아온 셈이다.

이미 시장은 세계화됐다.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가 오간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 홀로 독야청청 공정가격을 주장할 수는 없다. 지속가능발전에 경제적 불이익이 따라온다면 그것은 시장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성에 글로벌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 이미지 출처: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59062058&orderClick=LEa&Kc=#N

지식1G

지속가능경영의 이행과 공시를 위한 글로벌 기준

지속가능경영의 이행

ISO26000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기준
환경, 인권, 노동 등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

ISO37001 - 반부패경영시스템
모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한 부패방지 경영 체계의 수립, 실행, 유지,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들을 규정

RE100 - Renewable Energy 100
기업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충족하자는 자발적인 캠페인

지속가능경영의 공시

GRI - 지속가능경영정보 가이드라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국제기구로, 대다수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 공시를 위해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CDP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들에 기업의 주요 환경 정보를 평가해서 제공하는 글로벌 비영리 기관이자 평가 지수 명칭

SASB - 지속가능 회계기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기업의 비재무공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지속가능 회계기준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 주요 프로그램 안내

주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0: 진실, 신뢰, 투명성
개최방식 온라인 화상회의(www.iacc2020.kr)

GMT*	한국시간	[Day 1] 12월 1일(화)
11:30-12:00	20:30-21:00	개회식
12:00-13:30	21:00-22:30	(개막세션)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 203: 진실, 신뢰, 투명성
14:00-15:30	23:00-00:30	(전체세션 1) 평화와 사회정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투명성 기준
		[Day 2] 12월 2일(수)
05:00-06:20	14:00-15:20	(특별대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의를 말하다
08:00-09:30	17:00-18:30	(권익위 워크숍 1) 청렴정책의 국가간 전수 성공사례와 교훈
11:00-12:30	20:00-21:30	(한국세션) 신뢰사회를 위한 새로운 청렴 전략
13:00-15:00	22:00-00:00	(전체세션 2) 가짜뉴스와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16:30-18:00	01:30-03:00	고위급 세션
		[Day 3] 12월 3일(목)
08:00-09:30	17:00-18:30	(권익위 워크숍 2) 코로나19 방역에서 본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신뢰
13:00-14:30	22:00-23:30	(전체세션 3) 신뢰와 청렴을 위한 공동행동
		[Day 4] 12월 4일(금)
12:00-13:30	21:00-22:30	(전체세션 4) 부패자금과 면책의 악순환의 고리 끊기
14:00-15:15	23:00-00:15	(폐막세션) 진실, 신뢰, 투명성을 위한 2030 의제 설정 * 폐막행사 병행

*전 세계 140여개국 참가자들을 고려하여 그리니치 표준시(GMT)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독자퀴즈

Q. 다음 중 이번 호에서 소개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글로벌 기준이 아닌 것은?

① ISO14001
② RE100
③ ISO37001
④ GRI

지난 호 정답
④

지난 호 정답자는
최영환 님, **이상준** 님,
장준혁 님, **한지숙** 님,
성주연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acrcbusinessethics@gmail.com)
*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